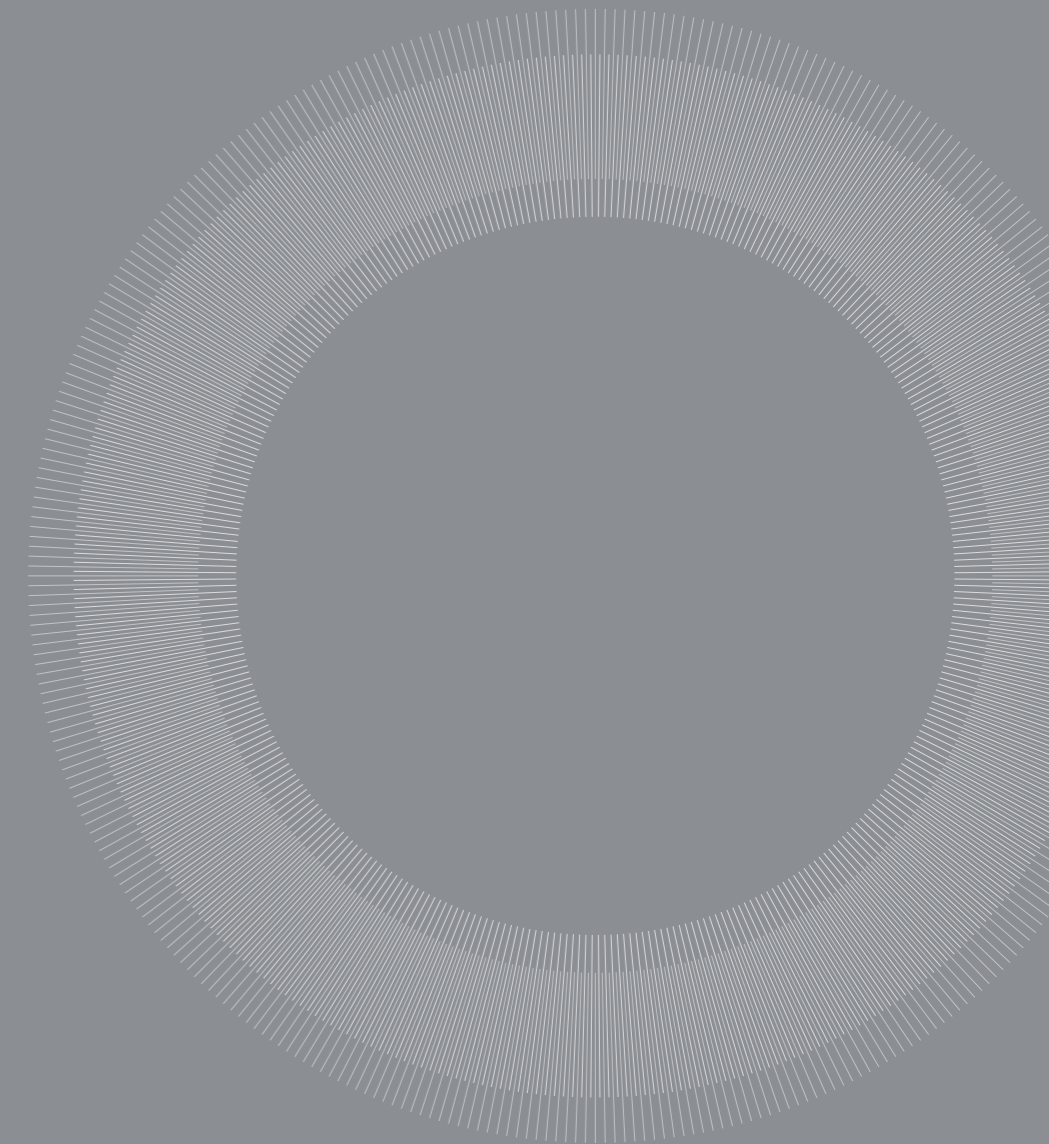


**한화컴플라이언스위원회
운영보고서 2020**

한화컴플라이언스위원회 운영 보고서 2020

Hanwha Compliance Committee Report 2020

MESSAGE	02 한화컴플라이언스위원회 04 발간사
WHO WE ARE	07 컴플라이언스위원회 소개 08 컴플라이언스위원회 위원 10 컴플라이언스위원회 업무 운영
WHAT WE DO	12 컴플라이언스위원회 회의 운영 14 준법경영 의식 내재화 15 컴플라이언스 역량 강화 16 교육 20 회사별 자체 점검 및 개선 활동 지원
WHAT WE FOCUS ON	22 외부위원 특별 대담 28 특별 칼럼
WORK STATUS	33 화학·에너지 35 기계·항공·방산 38 금융 40 건설·서비스 42 글로벌
AT A GLANCE	44 미디어에 비친 한화컴플라이언스위원회



신의에 바탕을 둔 정도경영, 한화의 신념입니다

한화컴플라이언스위원회는 준법경영과 정도경영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온 김승연 회장의 강력한 실천 의지를 반영한 조직입니다. 위원회는 그룹 전반의 컴플라이언스 현안을 공유하고 새로운 준법경영 문화를 확립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물론 모든 이해관계자와 성공을 나누는 '함께 멀리'의 가치를 더욱 확산시켜 나갈 것입니다.



한화그룹은 지난 68년간 수많은 변화와 위기 속에서도 굳건한 성장의 역사를 써왔습니다. 화약 국산화를 통해 국가와 사회 발전에 초석을 놓았던 창업 초기를 지나 국내 재계 7위의 위상을 가진 글로벌 기업으로 크게 성장했습니다. 전 인류가 지속가능한 내일을 맞이할 수 있도록 화학·에너지, 기계·항공·방산, 금융, 건설·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도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양적 성장만으로는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약속할 수 없는 시대입니다.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은 2011년 '도전·혁신·정도'를 그룹의 핵심가치로 선포하고 이후 지속적으로 준법과 정도를 경영의 화두로 제시해 왔습니다. 그리고 준법경영과 정도경영이 한화인의 확고한 신조로 뿌리내려야 한다는 점을 인지하고 이를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으로 강화할 것을 지속적으로 주문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김승연 회장의 강력한 의지 하에 한화그룹은 2018년 한화컴플라이언스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그룹의 준법경영도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으로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한화의 모든 기업 활동은 신의에 바탕을 둔 정도경영이어야 합니다. 이것은 제가 기업을 경영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신념이기도 합니다. 늘 내부관점이 아닌 외부의 냉철한 규범적 시각으로 기업 활동을 돌아보고 평가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지난해 출범한 컴플라이언스위원회는 더욱 엄격한 잣대로 그룹의 투명성을 감시하는 준법경영의 파수꾼이 될 것입니다. 고객도, 협력사도 우리의 동반자라는 인식을 갖고, 함께 도전하고 성공을 나누는 '함께 멀리'의 가치를 지켜가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 김승연 회장, 2019년 신년사 중

“정도경영은 이제 저의 신념을 넘어, 한화인 모두의 확고한 신조로 뿌리내려야 합니다. 그 중에서도, '안전'과 '컴플라이언스'는 우리 한화를 영속적인 미래로 나아가게 할 든든한 두 바퀴입니다. 한화의 이름으로 진행되는 모든 업무들은 언제나 안전과 준법경영, 이 두 가지의 완벽한 실천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입니다.”

- 김승연 회장, 2020년 신년사 중

한화컴플라이언스위원회는 출범 이후 한화그룹의 투명성을 감시하는 준법경영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그룹 차원의 컴플라이언스 정책을 수립하고, 각 계열사 준법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그룹 전반의 컴플라이언스 현안을 공유하고 새로운 준법경영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왔습니다.

2020년, 출범 3년차에 접어드는 컴플라이언스위원회는 더욱 폭넓고 심화된 활동을 펼칠 계획입니다. 준법경영에 대한 전 임직원의 의지를 강화하고 계열사별 조직 역량을 제고하며 현안과 노하우를 공유할 것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경영문화 아래 환경을 보전하고 사회에 기여하며 인류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기틀을 만들겠습니다. 함께 도전하고 성공의 기쁨을 나누는 '함께 멀리'의 가치를 지켜가겠습니다.

한화컴플라이언스위원회

윤리적이고 책임 있는 경영의 기준을 제시하겠습니다

성장을 향한 길이 정도(正道)에 어긋나지 않는지, 신뢰와 정직, 준법과 같은 사회적 자본이 함께 충분히 성숙해 왔는지 성찰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이제 기업은 사회와 국가,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법과 상식에 걸맞은 경영을 펼쳐야 합니다. 한화그룹은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컴플라이언스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우리는 윤리적이고 책임 있는 경영에 대한 제안을 지속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한화그룹 대내외 관계자 여러분,

한화컴플라이언스위원회 출범 이후 지난 2년여간의 고민과 실천을 본 지면을 통해 여러분들과 나눌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1977년 판사에 임용되어 반세기 가까이 법조인의 길을 걸으며 대한민국 기업들의 도전과 응전을 지켜보아 왔습니다. 전후(戰後) 우리 기업들이 실천한 불굴의 도전과 성취는 대한민국의 눈부신 성장을 견인했을 뿐만 아니라 국민 삶의 질을 비약적으로 향상시켰습니다. 우리의 성공은 전 세계를 놀라게 했고, 한국인들은 세계 어디에서나 긍지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적 번영의 속도만큼 정의와 균형, 윤리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함께 성장하고 있었는지는 언제나 저의 큰 고민이자 과제였습니다. 성장을 향한 길이 정도(正道)에 어긋나지 않는지, 신뢰와 정직, 준법과 같은 사회적 자본이 함께 충분히 성숙해 왔는지 성찰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오늘날 우리 기업들은 국경도, 한계도 없는 경쟁의 무대에서 생존을 건 싸움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그 어느 때보다 엄격한 법적·윤리적 기준을 스스로 정립하고 지켜나가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기업의 가치가 단순히 재무적 성취로만 측정되던 시대는 지났기 때문입니다.

이제 기업은 사회와 국가,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한 원대한 목표를 수립하고 적절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바탕으로 법과 상식에 걸맞은 경영을 펼쳐나가야 합니다. 또한 사회와 국가, 환경이 요구하는 윤리와 규범의 변화를 기민하게 살피고 이에 대응하는 경영의 기반을 갖춰야 합니다. 기업이 이를 실천하고 인류의 행복에 이바지하는 선량한 기업시민의 일원으로 인정받을 때 비로소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 한화그룹은 2018년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 속에서 창의적인 기업 활동을 보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며, 균형 있는 국민 경제의 발전 및 경제민주화를 도모하기 위해 컴플라이언스위원회를 발족했습니다. 저는 우리 헌법의 준엄한 가치를 존중하고, 준법경영과 정도경영을 실천해 나가기 위한 조직의 초대 위원장으로서의 중책을 맡아 한화그룹의 컴플라이언스 조직 및 제도 정비에 작으나마 힘을 보탬 수 있었습니다.

이 보고서는 그간 한화그룹이 당면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고 모든 이해관계자와 '함께 멀리' 가기 위해 위원회가 기울여 온 다양한 경험과 노력에 대한 기록입니다. 또한 앞으로 한화그룹과 그 계열사, 나아가 우리 대한민국 기업들이 실천해야 할 윤리적이고 책임 있는 경영에 대한 제언이기도 합니다.

한화그룹이 이 시장에서 새로운 기회를 포착하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을 경주하는 동시에 새로운 준법경영 문화를 정립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며, 한화그룹 대내외 관계자 여러분의 따뜻한 격려와 응원의 시선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화컴플라이언스위원회 위원장
이 훈 훈

Who We Are

창립 이후 국가와 사회에 헌신하며 국민과 함께 성장해 온 한화그룹은 더욱 투명하고 윤리적인 경영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컴플라이언스위원회를 발족했습니다. 정책 수립부터 교육, 진단과 실행에 이르는 종합적인 활동을 통해 글로벌 스탠다드에 걸맞은 준법경영을 실천하겠습니다.

- 07 컴플라이언스위원회 소개
- 08 컴플라이언스위원회 위원
- 10 컴플라이언스위원회 업무 운영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자발적 준법경영 시스템

컴플라이언스위원회 출범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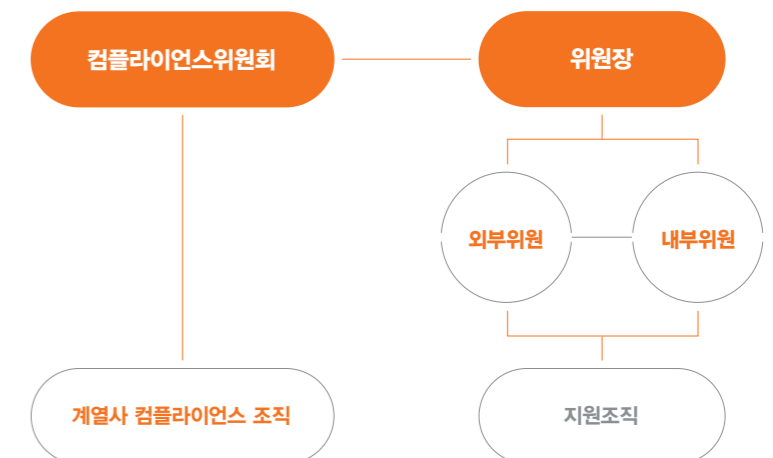
한화그룹은 2018년 7월 그룹 차원의 준법경영을 도모하기 위해 컴플라이언스위원회를 신설했습니다. 컴플라이언스위원회는 김승연 회장이 매년 임직원 대상 메시지를 통해 강조해 오던 “모든 임직원이 준법·정도 경영을 근간으로 삼고 ‘함께 멀리’의 동반성장 철학을 적극적으로 실천해 나갈 것”을 당부한 것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이는 외부적 요인이 아닌, 그룹 내부적 인식에 따른 자발적 준법경영 실천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습니다.

컴플라이언스위원회 지위

컴플라이언스위원회는 그룹 차원의 컴플라이언스 정책을 수립하고, 각 계열사의 이행 여부 점검 및 관련 업무를 자문, 지원함으로써 모든 계열사의 준법경영을 도모하는 그룹 협의체입니다.

컴플라이언스위원회 조직

컴플라이언스위원회는 업무 수행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총 위원 5인 중 과반수인 3인을 외부위원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화그룹은 전 계열사 컴플라이언스 조직을 재정비해 총 128명(전담자 66명, 겸직자 62명)의 컴플라이언스 인력을 두고 있습니다.



독립성·공정성을 지닌 전문 협의체

컴플라이언스위원회는 독립성과 객관성, 공정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총 5명의 위원 가운데 3명을 외부위원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들 위원은 매 분기 한화그룹과 계열사의 주요 컴플라이언스 이슈에 대해 보고 받고 주요 안건을 심의, 의결합니다.



위원장
이훈훈 前 대법관

1972년 14회 사법시험에 합격했으며, 판사 시절 국민의 기본권 증진에 크게 기여한 바 있습니다. 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공익제보자 보호를 위한 진보적 판례를 남겼으며 2006년 대법관 취임 이후 국민참여재판의 정착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환경법과 행정법의 권위자로서 '4대강 사업 집행정지 신청사건'에 대해 소수 의견을 내는 등 남다른 소신과 사명감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2011년 정년퇴임 이후 2012년부터 법무법인 화우가 설립한 화우공익재단의 초대 이사장을 역임하며 인권 존중과 사회정의 실현에 헌신했습니다. 2018년 대법원의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했으며 같은 해 한화컴플라이언스위원회 초대 위원장으로 취임했습니다.

외부위원

이정구 성공회대 前 총장

1999년 3월부터 성공회대 신학과 교수로 재직했으며,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성공회대 총장 역임 후 현재 성공회대 명예교수로 활동 중입니다. 진보사학으로 분류되는 성공회대의 총장 재임 기간 중 '비를 함께 맞자'를 모토로 '함께 더불어 사는 공동체 교육'을 강조했으며, 지역사회와의 공존에 관심을 가지고 구로마을대학을 개소한 바 있습니다.



외부위원

조홍식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前 원장

부산지방법원 판사, 변호사, 서울대 교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했습니다. 환경 분쟁 및 환경법 분야 국내 최고 권위자로 소송과 분쟁 해결, 후학 양성 등에서 두루 업적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평소 컴플라이언스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를 병행, 한국수자원공사 이사회 의장, 가스공사 혁신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며 공사 내 비리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시스템 혁신을 추진하는 등 기업 내 컴플라이언스 활동에도 전문성을 갖췄습니다.



내부위원

이만석 대표이사



내부위원

손재일 전무



- 한화케미칼(現 한화솔루션) 해외영업부
- 한화 구조조정본부 상무
- 한화케미칼(現 한화솔루션) CA사업부장
- 한화케미칼(現 한화솔루션) 전략기획본부장
- 現 (주)한화 무역부문 대표이사 부사장

- (주)한화 방산사업부
- 북일학원 사무국장
- 한화지상방산 대표이사
- 現 (주)한화 지원부문 전무

준법경영 문화 정착을 위한 위원회 운영

컴플라이언스위원회의 업무는 위원회가 직접 주관해 수행하는 컴플라이언스 업무 운영과 개별 계열사의 컴플라이언스 업무 지원으로 이원화하고 있습니다.

컴플라이언스위원회 주관 업무



① 교육

임직원의 자발적 준법경영 문화를 정착하고 계열사 컴플라이언스 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출범 이후 전 계열사 임직원 준법 교육, 컴플라이언스 전문화 교육, 하도급법 교육, EU 일반 개인정보보호법 교육 등을 시행했으며, 계열사의 사업 영역과 업무 특성에 걸맞은 커리큘럼을 개발,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② 자율준수 가이드라인 제작 및 교육

컴플라이언스위원회는 연간 추진업무로서 시의성 있는 주요 규제 법규별 표준 자율준수 가이드라인을 마련·배포하는 한편, 각 계열사가 회사 실정에 맞는 자율준수 가이드라인을 갖추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계열사 실무자, 자문사와의 협업으로 제작되는 가이드라인은 하도급법(2019년)과 영업비밀 보호(2020년)를 주제로 제작했습니다.



③ 회사별 자체 점검 및 개선 활동 지원

업무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회사별 자체 점검 및 개선 활동을 상시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계열사 간 내부거래 및 하도급거래와 관련한 컴플라이언스 강화를 권고했습니다. 또한 현장에서 위법한 경영활동이 발견되는 경우 모든 내·외부 이해관계자가 이에 대한 조사를 요구할 수 있는 외부고발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고발을 접수한 각 계열사는 진상조사 등을 거쳐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④ 컴플라이언스 메시지 전파

시의성 있는 주제를 선정해 준법경영 관련 메시지를 각 계열사에 전파하고 임직원의 컴플라이언스 경각심 제고와 그룹 내 준법 문화 저변 확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계열사 컴플라이언스 업무 지원

컴플라이언스위원회는 각 계열사 컴플라이언스 조직의 업무 계획 및 이에 대한 보완 사항을 검토합니다. 또한 이를 기반으로 매년 업무 실적을 평가하여 일선에서 충실한 컴플라이언스 업무가 수행되도록 지원·관리하고 있습니다. 매년 주요 사업군별 컴플라이언스 조직 세미나를 개최하여 주요 이슈를 공유하고, 공통적인 애로사항에 대한 개선사항을 도출하는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What We Do

컴플라이언스위원회는 경영의 투명성 제고, 책임경영 기반 마련, 이사회 중심 경영 강화, 계열사의 자발적인 준법경영 시스템 구축 등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향후 한화그룹은 역량 있는 컴플라이언스 전문가를 양성하는 한편 국내 및 글로벌 규제에 대응해 다각적이고 체계적인 활동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 12 컴플라이언스위원회 회의 운영
- 14 준법경영 의식 내재화
- 15 컴플라이언스 역량 강화
- 16 교육
- 20 회사별 자체 점검 및 개선 활동 지원

2018-현재 정기회의 개최 현황 및 안건



2019-2020 중점 추진 과제 및 업무 개요

2019 중점 추진 과제	업무 개요
<p>임직원 준법경영 의식 제고</p> <p>임직원 대상 컴플라이언스 업무 일반, 컴플라이언스 업무의 중요성 등에 대해 교육 전사 차원의 준법경영 마인드 제고</p>	<p>1분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룹 회장 신년사·CEO 메시지 전파 - 제1회 그룹 공통 교육(준법 교육) - 컴플라이언스 인력 전문화 교육 - 컴플라이언스 인력 간담회 개최 (금융 사업군) - 컴플라이언스위원회 메시지 전파 <p>2분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원 준법 교육 - 자율준수 가이드라인 배포 - 컴플라이언스 인력 간담회 개최 (건설·서비스 사업군) - 컴플라이언스위원회 메시지 전파
<p>자발적인 준법경영 시스템 구축 (하도급법)</p> <p>주요 규제 법규별(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등) 표준 자율준수 가이드라인 마련·배포 각 사가 실정에 맞는 자율준수 가이드라인을 갖추고 주요 규제 법규에 따른 제재 리스크 감소</p>	<p>3분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회 그룹 공통 교육(윤리 교육) - 현장점검 결과 보고(내부거래) - 컴플라이언스 인력 간담회 개최 (화학·에너지 사업군) - 컴플라이언스위원회 메시지 전파 <p>4분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컴플라이언스 인력 간담회 개최 (기계·항공·방산 사업군) - 그룹 및 각 계열사 컴플라이언스 업무 실적, 차년도 업무계획 보고 - 컴플라이언스위원회 메시지 전파
2020 중점 추진 과제	업무 개요
<p>컴플라이언스 조직 역량 강화</p> <p>컴플라이언스 인력 세미나 및 연간 업무 실적 보고 각 사 컴플라이언스 조직 역량 강화</p>	<p>1분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EO 컴플라이언스 세미나 - 한화컴플라이언스위원회 운영 보고서 발간 - 컴플라이언스 인력 세미나 실시 (금융 사업군) - 신입사원 컴플라이언스 교육 - 컴플라이언스위원회 메시지 전파 <p>2분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회 그룹 공통 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실무) - 자율준수 가이드라인 배포 - 컴플라이언스 인력 세미나 실시 (화학·에너지 사업군) - 컴플라이언스위원회 메시지 전파
<p>자발적인 준법경영 시스템 구축 (영업비밀보호)</p> <p>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영업비밀보호를 주제로 표준 자율준수 가이드라인을 마련·배포 각 사가 실정에 맞는 자율준수 가이드라인을 갖추고 주요 규제 법규에 따른 제재 리스크 감소</p>	<p>3분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회 그룹 공통 교육(근로기준법 실무) - 컴플라이언스 인력 세미나 실시 (기계·항공·방산 사업군) - 신입사원 컴플라이언스 교육 - 컴플라이언스위원회 메시지 전파 <p>4분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컴플라이언스 인력 세미나 실시 (건설·서비스 사업군) - 그룹 및 각 계열사 컴플라이언스 업무 실적, 차년도 업무계획 보고 - 컴플라이언스위원회 메시지 전파

준법경영 의식 내재화

컴플라이언스위원회는 준법경영이 임직원의 마음가짐에서 출발한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임직원이 모든 기업 활동에 있어 법적인 책임을 준수하고 사회적 책임을 실천할 수 있도록 준법경영 의식 내재화를 위한 교육과 메시지 전파를 정례화하고 있습니다.

준법경영 메시지 전파



김승연 회장은 지난 2019년 신년사를 통해 “내부 관점이 아닌 외부의 냉철한 규범적 시각으로 기업 활동을 돌아보고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으며 2020년 신년사에서 “정도경영은 한화인 모두의 확고한 신조로 뿌리내려야 한다”며 “안전과 컴플라이언스는 한화를 영속적인 미래로 나아가게 할 든든한 두 바퀴”라고 준법경영의 중요성을 전달했습니다. 이에 따라 컴플라이언스위원회는 각 사 대표이사가 소속 임직원에게 준법경영 관련 메시지를 전달할 것을 권고했으며 계열사들이 국내외 규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처해 준법경영이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으로 강화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주요 활동

- 주기적인 컴플라이언스위원회 메시지 전파
- 공정거래위원회 공시 업무 관련 당부 사항 전달
- 성희롱 사례 공유 및 성평등 메시지 전달
- 내부거래 관련 주요 유의 사항 공유

준법경영 내재화 교육



컴플라이언스위원회는 모든 임직원이 법적·사회적 책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엄격한 기준 하에 준법 윤리를 실천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요 활동

- 임원 준법 교육
준법경영에 대한 김승연 회장과 그룹의 강력한 의지를 전달하고 이에 따른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임원 준법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입·경력 임원을 대상으로 1년에 2회 교육을 진행하는 한편 전 계열사 임원 대상 조찬특강을 개최해 컴플라이언스 문화 저변 확대를 위한 리더의 책임과 역할에 대해 공유했습니다.
- 신입사원 준법 교육
2020년부터 신입사원을 대상으로 준법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화그룹의 일원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신입사원들은 기업시민으로서 실천해야 할 사회적 책임과 준법경영의 이해, 준법 의식의 중요성 등에 대해 교육받고 있습니다.

컴플라이언스 역량 강화

컴플라이언스위원회는 출범 직후 전사 컴플라이언스 조직을 재정비했으며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의 전문성 강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실무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시의성 있는 이슈별 자율준수 가이드라인 및 체크리스트를 마련, 배포하는 한편 사업군별 간담회, 세미나 등을 실시해 컴플라이언스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가이드라인 배포



하도급법 자율준수 가이드라인

컴플라이언스위원회는 그룹 계열사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을 자율적으로 준수할 수 있도록 <하도급법 자율준수 가이드라인>을 배포했습니다. 컴플라이언스위원회는 주요 계열사 현장 점검 및 현장 담당자와의 간담회를 실시해 실무 상 핵심 이슈를 선별했으며, 기본 하도급 가이드라인과 5개 산업별 주요 이슈를 정리한 맞춤형 가이드라인 총 6종으로 제작했습니다. 배포된 가이드라인은 현재 업무 현장에서 하도급법 위반 리스크 경감 및 임직원 교육 등에 적극 활용되고 있습니다.

영업비밀보호 자율준수 가이드라인

컴플라이언스위원회는 사내 영업비밀보호 및 경쟁사의 영업비밀 침해 관련 분쟁 제기에 대한 대응, 영업비밀 체계 개선 방안 등을 담은 자율준수 가이드라인을 제작, 배포했습니다.

체크리스트 배포



컴플라이언스위원회는 각 계열사가 독립적이고 체계적인 준법경영을 실행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를 제작, 배포하고 있습니다. 체크리스트는 컴플라이언스 조직을 비롯한 현업 부서의 업무에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배포 후 이의 활용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교육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체크리스트 배포 현황

- 이사회 운영 체크리스트 배포
- EU 일반 개인정보보호규정 체크리스트 배포
- 방산 법무 실무 배포
- 해외 반부패방지법(FCPA) 체크리스트 배포(예정)
- 경제제재(Economic Sanctions) 체크리스트 배포(예정)

계열사 컴플라이언스 인력 역량 강화



계열사 컴플라이언스 인력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을 시행 중입니다. 2019년 2월 계열사 컴플라이언스 전담 및 겸직자 총 8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육에서는 컴플라이언스 업무의 개념, 해외 동향, 선진사례 등을 소개함으로써 컴플라이언스 업무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도모했으며 그룹 내 컴플라이언스 우수 사례를 공유했습니다. 컴플라이언스위원회는 담당자 역량 강화를 위한 각 사업군별 컴플라이언스 인력 세미나를 정기적으로 개최할 예정입니다.

교육

컴플라이언스위원회는 임직원의 국내외 법규 준수 및 윤리준법 의식 내재화를 위한 그룹 차원의 컴플라이언스 교육 체계를 수립하고 실행에 옮기고 있습니다.

컴플라이언스 내재화

임원조찬 특강



컴플라이언스위원회 조홍식 위원은 한화그룹 임원조찬특강에서 'Compliance, Why and How'라는 주제로 기업 내 컴플라이언스 문화 정착을 위한 리더십에 관한 강연을 실시했습니다.

- 일시: 2019. 4. 15.
- 장소: 더 플라자 그랜드볼룸
- 참석자: 그룹 계열사 임원 500여 명
- 강연자: 컴플라이언스위원회 조홍식 위원

신임·경력 임원 특강



한화그룹 임원으로 위촉된 신임·경력 임원들을 대상으로 준법경영 의식을 공유하는 '정도경영 특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임 임원 교육

- 일시: 2019. 1. 28.
- 장소: 한화인재경영원
- 참석자: 그룹 신임 임원 89명

경력 임원 교육

- 일시: (1차) 2019. 5. 9, (2차) 2019. 12. 3.
- 장소: 한화인재경영원
- 참석자: (1차) 9명, (2차) 13명

신입사원 컴플라이언스 강연



컴플라이언스위원회는 그룹 신입사원 입문 교육 과정에서 '컴플라이언스의 이해'를 주제로 윤리준법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일시: 2020. 1. 13.
- 장소: 한화인재경영원
- 참석자: 2020년 상반기 채용 신입사원 260명
- 강연자: 컴플라이언스위원회 이재인 상무

컴플라이언스 인력 전문화 교육



계열사 컴플라이언스 인력의 역량 강화를 위해 '기업경영과 컴플라이언스', '컴플라이언스 우수 업무 사례 발표'를 주제로 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 일시: 2019. 2. 21.
- 장소: 장교동 한화빌딩 3층 Auditorium
- 참석자: 전 계열사 컴플라이언스 전담 및 겸직자 총 84명
- 강연자: 법무법인 화우 이송기 변호사 /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정희경 부장

국내 법규 준수

산업안전사고 대응 교육



화학·에너지, 기계·항공·방산 계열사를 대상으로 산재사고 발생 시 투명하고 안정적인 사고 대응력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교육은 법무법인 화우 이광욱, 홍경호 변호사가 진행했습니다.

1차 교육

- 일시: 2018. 10. 11.
- 장소: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인력개발원
- 참석자: 기계·항공·방산 계열사 안전환경 최고책임자, 안전환경 담당자 및 법무 담당자 총 47명

2차교육

- 일시: 2018. 10. 18.
- 장소: 한화케미칼 대전연구소
- 참석자: 화학·에너지 계열사 안전환경 최고책임자, 안전환경 담당자 및 법무 담당자 총 67명

불공정거래 행위 근절 교육



컴플라이언스위원회는 대·중소기업 간 공정거래 기반 조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공정거래법 및 하도급법 상 불공정 행위 근절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 일시: 2019. 4. 24.
- 장소: 장교동 한화빌딩 3층 Auditorium
- 참석자: 계열사 구매, 원가, 영업팀 팀장 및 담당실무자 총 129명
- 강연자: 법무법인 화우 이광욱 변호사, 전상오 변호사

**이사회 운영
실무 교육**



계열사별 이사회 중심의 독립경영 및 이사회 운영 내실화를 지원하기 위한 이사회 운영 실무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 일시: 2019. 6. 18.
- 장소: 장교동 한화빌딩 3층 Auditorium
- 참석자: 계열사 이사회 운영 담당자 및 법무 담당자 약 100명
- 강연자: 컴플라이언스위원회 이재인 상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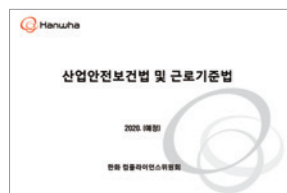
**공정거래법
개편 전망 강연**



컴플라이언스위원회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경제학자이자 공정거래 분야의 권위자인 숙명여대 유진수 교수를 초청해 '공정거래법 개편 전망과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강연을 개최했습니다.

- 일시: 2019. 12. 17.
- 장소: 장교동 한화빌딩 3층 Auditorium
- 참석자: 계열사 컴플라이언스 담당자 약 120명
- 강연자: 숙명여대 유진수 교수
 - 1995. 3. - 현재 숙명여자대학교 경제학부 조교수, 부교수 및 정교수
 - 2018. 3. - 2018. 8.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별위원회 위원장
 - 2011. 1. - 2016. 12.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이사
 - 1999. 5. - 2001. 5. / 2007. 7. - 2011. 8.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 자문위원

**산업안전보건법 및
근로기준법 등에 관한
실무 교육(예정)**



2020년 산업안전보건법 및 근로기준법 주요 내용에 대한 실무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해외 법규 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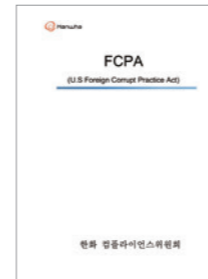
**EU 일반 개인정보보호규정(GDPR)
세미나**



컴플라이언스위원회는 유럽 현지의 규제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EU 일반 개인정보보호규정(GDPR,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세미나를 실시했습니다.

- 일시: 2019. 5. 23.
- 장소: 장교동 한화빌딩 3층 Auditorium
- 참석자: 상장회사 및 EU에 자회사를 둔 회사의 개인정보보호 인력 및 컴플라이언스 담당자 총 47명
- 강연자: 법무법인 율촌 손도일 변호사, 김선희 변호사

**해외부패방지법(FCPA)
세미나(예정)**



컴플라이언스위원회는 계열사 해외 사업 확대에 따른 글로벌 스탠다드 법규 준수를 지원하기 위한 해외부패방지법(FCPA, 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세미나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경제제재(Economic Sanction)
세미나(예정)**



최근 미국 등 세계 주요국가는 적대적인 국가나 기업 등을 대상으로 경제제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컴플라이언스위원회는 해외 사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2차적인 경제제재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경제제재 주요 내용에 대해 세미나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회사별 자체 점검 및 개선 활동 지원

컴플라이언스위원회는 사후 대처에 앞서 선제적으로 위험을 평가하고 현업에서 적절한 준법 통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열사의 자체 점검 및 개선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매년 시의성 있는 주제를 선정해 계열사별 자체 점검을 권고하며, 사별 개선 활동 상황을 모니터링, 지원합니다.

회사별 계열사 내부거래 자체 점검 및 개선 지원



컴플라이언스위원회는 2018년 계열사 간 내부거래와 관련한 법령 주요 내용을 전파해 회사별 내부거래 자체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각 사는 계열사 간 내부거래에 대한 객관적 근거 마련, 내부거래 운영 프로토콜 수립, 이사회 의결 및 공시 누락을 방지하기 위한 업무 프로세스 개선 등을 진행했습니다.

회사별 하도급 자체 점검 및 개선 지원



컴플라이언스위원회는 2019년 그룹의 주요 계열사에게 제조·건설·용역 위탁 거래에 대한 하도급법 실태와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관련 주요 의무 사항을 전파함으로써 계열사의 하도급 관련 자체 점검을 독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주요 계열사는 자체 점검을 실시한 후 계약 및 대금관리 프로세스 보완 등 개선 활동을 추진했습니다.

회사별 영업비밀보호 자체 점검 및 개선 활동 지원(예정)



기업 간 기술 및 전문인력 확보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이로 인한 영업비밀 침해 분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컴플라이언스위원회는 각 계열사에 영업비밀보호 주요 법령 내용을 정리, 교육·전파함으로써 회사별 자체 점검이 실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물론, 회사별 개선 활동을 독려·지원할 계획입니다.

상시 고발 시스템 구축



각 계열사는 'CEO 메일 보내기' 등 상시적인 내부고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임직원을 포함한 누구나 업무 중 발생하는 위법 사항을 제보할 수 있으며 고발을 접수한 계열사는 진상조사 등을 거쳐 엄정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What We Focus On

컴플라이언스위원회는 계열사의 자율·책임경영을 지원하고 업무 현장에서 자발적인 준법경영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임직원의 준법 의식 내재화를 통해 글로벌 스탠다드에 걸맞은 컴플라이언스 문화를 구축하고 이해관계자의 가치를 제고하겠습니다.

- 22 외부위원 특별대담
- 28 특별 칼럼

컴플라이언스, 글로벌 기업의 품격 있는 경영 원칙

공정한 경쟁, 정의로운 경영을 위한 컴플라이언스위원회 외부위원 대담



위원장 이홍훈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양적 성장과 함께 품격 있는 경영 철학이 필요합니다. 그 시작이 바로 준법경영입니다.”



2018년 7월 발족 이후 준법경영 관련 정책 수립 및 경영 투명성 제고를 위한 자문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 온 컴플라이언스위원회. 그 중심에는 제반 법령, 공익 활동, 종교 윤리, 환경 관련 권위자인 외부위원들이 있다. 이들은 당면한 사회적 요구와 과제를 검토하고 현실적인 방안과 목표를 제시하며 한화가 준법경영 문화를 선도하는 리더로 자리할 수 있도록 제언을 아끼지 않았다. 세 명의 외부위원에게 지난 활동에 대한 종합적 평가와 함께 오늘날 기업들에게 요구되는 가장 큰 가치와 지향점에 대한 조언을 요청했다.

바쁘신 가운데 한화그룹의 준법경영·정도경영을 위해 기탄 없는 의견과 귀중한 제안을 해주신 세 분 외부위원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으로 활동해 오신 그간의 소회를 밝혀주십시오.

이홍훈 위원장 직을 처음 제안받았을 때 한화가 얼마나 진정성을 가지고 위원회 구성을 추진하는지 매우 궁금했습니다. 이후 금춘수 부회장과 만나 이야기를 나누며 김승연 회장 및 한화그룹 임직원 여러분의 준법경영 실천 의지를 확인하고 나서 함께하기로 결정했지요. 돌이켜 보면 좋은 결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대한민국 기업이 양적 성장 일변도의 철학에서 나아가 질적으로 성숙하는 과정에 함께할 수 있어 기쁘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조홍식 한화는 그간 자타가 공인할 정도의 성장을 이룩했습니다.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시기에 이는 자랑스러워할 만한 성과이지요. 한화는 이 성과의 기반이 우리 사회와 그 구성원이었음을 인지하고, 이에 부합하는 사회적 책무를 다해야 한다는 인식에 도달했던 것 같습니다. 컴플라이언스는 이런 인식을 실천으로 옮기기 위한 첫 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3년 전만 해도 컴플라이언스는 우리나라에서 비교적 생소한 개념이었기에 한화의 시도는 신선한 것이었고 이러한 노력에 동참할 수 있었던 것은 제게도 영광이었습니다.

이정구 저는 외부위원으로 위촉을 받고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분들을 만나게 된 것을 큰 기쁨이고 영광이라 생각합니다. 조홍식 위원님, 권혁웅 전 위원님, 이민석 위원님, 손재일 위원님. 무엇보다 한화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 이 위원회를 헌신을 다해 이끌고 계시는 이홍훈 위원장님과 조현일 간사님의 노력과 수고로 위원회가 한화의 긍정적 변화에 함께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홍훈 우리 경제가 성장을 첫 번째 가치로 두어야 했던 시대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대한민국이 경제 규모 세계 10위의 반열에 올라선 지금이야말로 기업이 자신과 국가의 품위를 지켜 나가기 위한 변화의 기로에 서 있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경제적 성과만으로 기업이 생존할 수 있는 시대는 지났기 때문입니다. 기업의 평균수명은 점점 짧아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조차도 30년 이상의 수명을 가진 기업이 10% 안팎이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업이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인식을 더욱 명확히 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품격 있는 경영이 필요합니다. 그 시작이 준법경영, 정도경영입니다.

이정구 많은 국민들은 대기업에 대해 양가의 감정을 가집니다. 대기업들이 국내 산업과 경제를 발전시키고 일자리 창출과 개인 소득 증진이라는 순기능을 했다는 것을 인지하면서도 동시에 대기업에 대한 불신과 반감을 품어온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 한화가 다른 대기업들에 우선하여 준법경영을 선언하고 투명하고 윤리적이며 인간 중심의 기업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위원회를 구성한 것은 기업정신의 혁신이며 큰 전환이라고 하겠습니다.

이홍훈 무엇보다 임원뿐만 아니라 직원 모두가 이러한 시대적 요구를 이해하고 위원회의 제안과 권고를 잘 받아들여 주신 부분도 감사한 일입니다. 제 자신부터가 한화에 대한 기대가 커졌습니다.

이정구 한화의 컴플라이언스위원회를 선두로 최근 다른 기업들이 속속 준법경영위원회를 신설하고 있다는 뉴스를 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타 기업들이 정책 수립을 하는 데 한화의 지침과 정책을 참고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한화의 책임이 더욱 커졌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저 또한 그만큼 무거운 책임감을 지니고 있습니다.

위원회에 참여하셨을 당시 준법경영에 대한 한화그룹의 당면과제는 무엇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눈에 띄게 개선, 또는 발전을 이룬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홍훈 한화는 국가의 안정과 발전에 가장 중요한 방위산업의 최중추이며 기계·항공·방산 및 화학·에너지 분야에서도 리더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철저한 원칙을 바탕으로 한 안전 관리와 임직원의 인식 제고가 중요합니다. 작은 사고도 우리 사회에 미치는 파급력이 매우 크고 이것이 회사에 대한 신뢰에 크게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대내적으로 안전경영과 관련한 기준을 마련하고 또 이를 실천하고 있었지만, 위원회 출범 이후 더욱 정밀히 계열사 안전경영 현황 조사를 실시하고 진단과 권고 등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임직원들의 인식 또한 크게 제고되었다고 느낍니다.

“한화의 임직원들은 자신의 사회적 역할과 책무를 더욱 엄중히 체감하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외부위원 이정구

조홍식 컴플라이언스는 단순한 준법을 넘어 그야말로 경영의 모든 면에 걸쳐 전방위적으로 작동해야 하는 중요한 회사 활동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과거에는 문제가 생기면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대응적 처방이나 사안별 해결책을 강구하는 데 급급했다면 현재의 컴플라이언스는 미래의 리스크를 평가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기획, 조직, 실행의 연속적 과정 아래 이루어져야 하는 중요한 회사의 작용이 되었습니다. 한화컴플라이언스위원회는 일찍이 이런 점에 착목하여,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컴플라이언스 활동을 시작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정구 좀 더 구체적으로 성과를 살펴보겠습니다. 한화는 350여 개 이상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가진 기업답게 세분화되어 가고 있는 각국의 규제에 적응하고 대응할 조직을 갖추게 됐습니다. 무엇보다 계열사들이 컴플라이언스 관련 부서를 조직하고 맞춤 교육을 하게 된 것은 큰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위원회 권고로 한화는 그룹 경영기획실을 해체하였고, 그룹 출신 사외이사를 배제하고 이사회 운영과 관련된 체크리스트를 배포함으로써 이사회의 자율성과 책임경영을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했지요. 또 강화된 교육을 통해 그룹 내 임직원들이 기업의 책임 경영윤리를 인식하고 각자의 역할과 책무를 엄중하게 체감하게 된 것도 큰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방산, 제조, 유통, 건설, 서비스 사업군에 이르기까지 산업별 하도급법 가이드라인 책자를 발간하여 배포한 것도 주목할 만합니다.

최근 한화그룹뿐만 아니라 국내 대기업들이 준법경영 의지를 대내외적으로 천명하며 그 실천방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내 기업의 움직임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정구 국내 기업들의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일부 시민들은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불신의 시각을 보내는 것도 사실입니다. 대기업들이 정경유착이나 탈법을 무마하기 위해 보여주는 시공연을 하는 것이 아니냐고 말이죠.

이홍훈 그렇습니다. 그러나 선진국의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 글로벌 기업들의 정경경영·준법경영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이고, 반드시 지켜야 할 사회적 책임입니다.

조홍식 그 동기가 무엇이건 상관없이 국내 대기업 모두가 준법경영 의지를 천명하고 이를 실천하겠다고 나선 것은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다만 두 분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그러한 조치가 당연한 뜨거운 감자를 처리하기 위한 방편으로 도모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렇다면 기업이 컴플라이언스 활동의 진정성을 인정받고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해야 할 최우선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홍훈 무엇보다 경영진의 의지가 중요하겠지요. 기업의 당면한 목표는 당연히 최대의 이익이자 성장이지만, 모든 성장은 법치주의의 틀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경영진이 확고한 철학과 의지를 가지고 엄정한 진단과 권고, 시정을 반복할 때 계열사와 하부조직의 변화가 함께 일어날 것입니다. 선전용 조직 변화와 구호로 그치는 기업 활동은 이제 시민들이 가장 먼저 외면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조홍식 동감합니다. 어떤 이는 사회(社會)를 '재화와 서비스를 구매하고 사용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 다시 말해 시장(市場)과 동일시하기도 합니다만 저는 조금 더 깊이 들어가 성찰해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특정한 활동을 하는 것은 그것을 통해 이루려는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가치 실현을 통하여 우리 사회로부터 소위 '사회적 인정'을 받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활동의 한쪽 측면만을 보서는 그 활동이 우리 사회에 가져올 영향을 있는 그대로 파악할 수 없습니다. 전략적 행동만이 능사가 아닌 것이지요. 요컨대 기업들은 자신의 사업 활동이 가지는 사회적 의미에 대하여 되돌아보고 그로부터 나오는 깨달음을 몸소 실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정구 준법경영 관련 조직을 설립하는 것은 어느 기업이라도 할 수 있지만, 이것을 실천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지속적으로 갱신되는 법규와 정책에 관한 정기적, 비정기적인 교육과 그 결과에 대한 모니터링이 중요합니다. 또 준법을 기꺼이 실천하도록 임직원에게 도덕성 및 인성, 감성 훈련도 필요합니다. 언제 어디에서도 임직원이 강한 소속감과 연대의식을 통해 자긍심을 고양할 수 있는 적절한 상벌제도와 복지도 필요합니다.

오늘날 기업환경 속에서 이토록 준법경영이 특히 강조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홍훈 공정과 정의는 지금 우리 사회가 요구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리고 우리 헌법의 큰 줄기를 이루는 큰 가치이기도 합니다. 우리 헌법의 경제 기조는 바로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 속에서 창의적인 기업 활동을 조장한다"는 것을 근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 사회는 '경쟁'에 매몰되어 공정의 가치를 소홀히 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은 곧 사회적 불평등과 투쟁, 반목을 야기했습니다. 한마디로 공정과 정의에 대한 요구는 오랜 시간 우리 사회가 내재하고 있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역사적 흐름인 것이지요.



외부위원 조홍식

“준법은 우리 사회의 존속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덕목입니다.”

조홍식 옳은 말씀입니다. 법은 우리 사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규칙입니다.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 사회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째서 '오늘날' 준법경영이 이토록 강조될까요? 저는 우리 사회의 존재방식이나 존재이유 등에 대한 성찰이 성숙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정구 여론이 매우 빠르게 형성되고, 또 기업에 미치는 영향력 또한 무척 크다는 점도 이유 중 하나일 것입니다. 현대사회는 기업의 아주 작은 실수도 놓치지 않는 다매체 시대입니다. 의도적 탈법이라면 문제는 더 심각해집니다. 비록 작은 실수일지라도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경비와 시간이 소요되며 또 완전 회복도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국내 기업뿐만 아니라 전 세계 기업들이 투명성과 도덕성, 이윤의 사회환원 등 공공성을 강화하고 있지요.

조홍식 천연하자면, 준법은 우리 사회의 존속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요소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오늘날 법철학자들이 공유하는 법의 본성에 관한 통설적 견해는 “법은 사회적으로 구성된 규칙”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규칙은 우리가 즐겨하는 이런저런 게임의 규칙, 즉 ‘룰(Rule)’이라고 생각하면 그 의미를 조금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게임에 참여한 플레이어들은 이 규칙을 어떻게 대합니까? 게임을 게임으로서 존재하게 하는, 다시 말해 게임을 ‘구성하는’ 필수적인 요소라고 생각하고 이 규칙을 지켜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게임의 규칙을 지켜야만 그 게임이 주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고 그래야 게임이 성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월한 게임 능력을 가진 플레이어일수록 룰을 엄격하게 지켜야 합니다. 그들이 게임의 규칙을 지키지 않고 이를 우회하거나 잠탈하여 능력의 차이를 더 벌린다면 그 게임은 더 이상 성립할 수 없으니까요. 기억해야 합니다. 게임은 상대방이 함께 참여해야 비로소 성립할 수 있음을 말입니다.

이흥훈 조홍식 위원께서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정의는 개인이 모두 인간답게 살 수 있는 토양을 만드는 원칙입니다. 누군가의 반칙이 지속적으로 용인되고 그로 인한 혜택을 소수가 누리다면 사회는 존속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한화와 같은 대기업의 솔선수범이 매우 중요합니다. 중소기업은 대기업보다 더 어려운 처지에 있기에 준법경영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대기업이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겠다는 상생 목표를 가지고 정도경영을 실천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대기업, 중소기업 모두 준법을 체질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준법경영에 대한 필요와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데 여전히 장애가 되는 문화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이정구 크고 작은 탈법에 대한 잘못된 관행과 임직원들의 무감한 인식을 들 수 있습니다. 법을 교박교박 지켜가면서 기업을 경영하며 이윤을 창출한다는 것은 국내에서는 불가능하다는 인식일 것입니다.

이흥훈 그렇습니다. 우리 법은 경제 주체 간에 꼭 지켜야 할 기본 질서를 규정해 두었는데 그걸 자신의 이익에 맞게, 편하게 해석합니다. 그 생각을 어떻게 바꾸느냐가 중요합니다. 법이 모든 것을 시정해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장애 요소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조홍식 앞에서 이어 다시 강조합니다만, 기업은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고 ‘사회’라는 게임에 참여한 일원(一員)입니다. 기업이라는 울타리를 벗어나 기업이 속해 있는 사회의 존재방식이나 존재 이유를 생각해 보면 기업에 대한 우리 사회의 요구가 그렇게 무리하게만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생각의 과정을 밟아 나아가면 소위 기업이 지고 있는 사회적 책임뿐만 아니라 기업이 어째서 기업 활동과 관련된 사회적 가치에 대해 새로운 인식을 해야 하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정구 한화처럼 전문화된 조직을 갖추지 못한 기업도 이러한 조직이 설치 운영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에서도 도움 필요가 있습니다. 또 초기에는 컴플라이언스가 임직원의 일상생활에 체화될 수 있도록 하는 적절한 보상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한화그룹은 국가와 국민에 대한 신용과 의리를 창업 이념으로 설립되어 ‘정도(正道)’를 핵심 가치 중 하나로 둔 만큼 컴플라이언스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실천 의지를 가진 기업입니다. 이러한 기업의 철학이 이해관계자의 이익과 그룹의 발전으로 이어지기 위해 한화그룹이 앞으로 해야 할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정구 한화의 핵심가치 중 하나인 ‘정도’가 곧 준법이며 상식이고 공공의 이익입니다. 하도급, 내부거래 등 공정거래 분야에서 남다른 투명성을 가지고 국민들이 기업에 대한 신뢰를 한층 더하기 바랍니다.

이흥훈 정도를 걷는 일이 어려운 것은 무엇보다 ‘지름길로 빨리’ 달려나가고 싶은 조급함을 이겨내야 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특히 극한의 경쟁을 해야 하는 기업에게 그것은 너무 많은 유혹이 도사리는 길이지요. 한화가 선제적으로 준법경영을 실천하고 있지만 앞으로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입니다. 그렇기에 한화의 또 다른 핵심가치인 ‘헌신’의 향목이 중요한 역할을 해줄 것으로 믿습니다. 의지를 가지고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의 길을 걷는 것. 이것이 우리 기업과 사회, 국가에 반드시 필요한 일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조홍식 저 또한 한화정신과 핵심가치를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지하듯이, 기업은 구성원들의 이윤 추구라는 파생적인 선택의지로 형성된 사회결합입니다. 공동사회(Gemeinschaft)가 아니라 이익사회(Gesellschaft)의 일종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화는 ‘신용과 의리’라는 공동사회에 어울리는 덕목을 철학으로 삼고 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형용모순처럼 들리지만, 저는 바로 이 지점에서 사회적 가치에 대한 한화의 헌신결정(Commitment)을 찾아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윤을 추구하면서도 신용과 의리라는 덕목을 지켜 내겠다는 실천 의지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룹 구성원 모두가 신용과 의리라는 덕목을 내면화하고 이를 실천한다면 존경받는 기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정구 구체적으로는 기계·항공·방산 사업군에서는 존엄한 인명과 사회의 안전이 달린 일이라는 사명을 가지고 산업재해 및 안전사고를 최소화할 교육 및 제도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화학·에너지 사업군에서도 정도를 지켜주시고, 환경을 최대한 보존하며 고객들에게 개인정보와 재산을 지켜주면서 더 큰 이익을 되돌려 줄 수 있는 상품 개발이 요구됩니다.



마지막으로 한화인들의 인식 개선과 준법 실천을 위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조홍식 앞서 위원장님께서 품격과 품위를 강조하셨는데, 크게 동감합니다. 사람에게 인격이 있듯이, 기업에게도 ‘사격(社格)’이란 것이 있습니다. 저는 한화가 기업 활동을 품위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자신이 하는 일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신이 아끼는 일을 허투루 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컴플라이언스도 품위를 위한 최소 조건입니다. 앞으로 컴플라이언스 활동을 통해 한화가 글로벌 스탠다드에 비추어 손색이 없는, ‘사격’이 빛나는 기업으로 비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구 투명하고 도덕적이며 양심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정도’가 모든 한화인들의 DNA로 자리 잡기 바랍니다. 정도야말로 김승연 회장께서 말씀하신 ‘함께 멀리’ 갈 수 있는 길입니다. 제기(祭器)를 만드는 장인과 같은 심경과 자세로 각자 맡은 직무에 임해 주십시오. 소명과 자긍심이 기업의 발전은 물론, 여러분의 가정과 국가, 세계의 행복과 평화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흥훈 저는 위원장으로서, 그리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한화인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자리를 마치고자 합니다. 세계에 내놓을 수 있는 기업을 만들고, 또 키워가고 있는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합니다. 더불어 앞서 우리 위원들께서 여러 차례 강조하셨던 한화의 역할, 기업의 본분을 과도한 요구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만큼 국가와 국민이 기업에 대해, 한화에 대해 거는 기대가 크고 한화가 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지대하다고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화인에게 요구되는 엄정한 기준이 바로 한화인이 이 사회에서 차지하고 있는 선도적 역할을 말해주는 것이라는 긍지를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컴플라이언스를 넘어



글 **임성택 변호사**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 인권위원

기업은 막대한 자원과 영향력을 지닌 사회 주체로서, 기업이 바뀌면 세상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인류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컴플라이언스위원회를 출범한 한화그룹에 거는 기대와 희망도 큼니다. 한화그룹의 준법경영은 협력회사, 지역사회, 이해관계자와의 상생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야흐로 세상이 바뀌고 있습니다. 기업의 본질을 다시 묻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기업의 목적은 이윤 추구와 주주가치 실현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8월 애플·아마존·펍시·월마트 등 미국을 대표하는 대기업 180여 곳의 CEO들이 ‘기업의 목적에 대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주주를 위한 눈앞의 이윤만 추구하지 않고 근로자와 고객, 사회 등 이해관계자를 고려하는 근본적 책무를 이행하겠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이를 두고 ‘주주자본주의의 종식’, ‘지속가능한 부와 공정한 번영, 포용적 자본주의로 전환’이라는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올해 열린 다보스 세계경제포럼(WEF)에서도 비즈니스가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를 전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논의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한화도 변화의 한복판에 있는 것 같습니다. 컴플라이언스위원회가 출범하고, 상생을 도모하며 환경을 중시하고 있습니다. 한화의 최근 광고에서는 “세상에 당연한 것은 없다. 당연한 공기, 당연한 별, 당연한 꿈, 당연한 내일이란 없다. 오늘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내일은 저절로 오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한화가 앞장서서 지속가능한 내일을 만들겠다는 다짐으로 보입니다.

실제 한화는 다양한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018년 7월 한화컴플라이언스위원회는 외부위원이 포함된 독립적 조직으로 출범했습니다. 전 계열사에 컴플라이언스 전담조직을 두어 전담자가 50여 명이 넘고, 겸직자까지 하면 160여 명이 넘는 인력을 갖추었습니다. 준법교육과 실천행사를 통해 준법경영



의지를 내재화하는 작업도 하고 있습니다. 각 사의 준법현황을 점검하며, 준법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였다 합니다. 나아가 한화의 컴플라이언스는 상생경영과 병행되고 있습니다. 한화의 준법경영이 협력회사와의 상생, 지역사회와의 상생, 이해관계자와의 상생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은 주목할 가치가 있습니다.

준법경영은 지속가능한 기업의 기초가 됩니다. 이제 컴플라이언스 리스크는 기업의 평판을 저하시키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기업의 존망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법을 준수하는 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법적 책임을 다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는 세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기업시민(Corporate Citizenship)이라는 말이 있지요. 기업이 시민으로서의 책무를 다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컴플라이언스는 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과 함께 가야 합니다.

CSR도 진화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소극적 측면’에서 기업이 공유 가치 또는 사회적 가치를 창출해야 한다는 ‘적극적 측면’으로 전환되고 있는 것이죠. CSV(공유 가치 창출, Creating Shared Value) 또는 SV(사회적 가치, Social Value)라는 개념이 등장한 지 오래입니다. 기업이 이윤 추구, 즉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사회·환경적 목표를 추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업이 바뀌면 세상이 바뀔 수 있습니다. 기업은 가장 많은 부를 가지고 있고, 가장 많은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권경영이라는 개념도 서구에서는 보편적인 흐름이 되고 있습니다. 과거 인권은 국가나 시민단체의 관심 영역이었습니다. 이제는 기업과 인권이 연결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기업은 국가보다도 더 밀접하게 개인의 삶과 환경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UN은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을 만들고, OECD는 ‘기업과 인권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했습니다. 기업이 국제적으로 승인된 인권원칙에 따라 인권을 존중해야 하고, 인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정책과 절차를 만들어야 하며, 나아가 인권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을 갖추어야 한다는 원칙은 국제규범이 되고 있습니다.

“한화는 비즈니스를 통해 인류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번영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한화의 기업소개 첫머리에 놓인 글입니다. 지구는 기후변화로 홍역을 치르고 있습니다. 양극화와 고령화, 저출산 등은 우리의 미래를 암담하게 합니다. 최근 유행하는 바이러스도 국제화된 지구의 문제를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어제보다 더 행복한 오늘, 오늘보다 더 밝은 내일을 위해 나서겠다는 한화의 다짐에 기대와 희망을 걸어 봅니다.

기업의 컴플라이언스 활동은 시대적 흐름이며 의무



글 윤철한 정책실장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화가 강력한 준법경영 의지를 가진 리더십 하에 컴플라이언스위원회를 출범했습니다. 시민사회는 한화가 더욱 막중한 책임과 사회적 기준을 가지고 글로벌 시장에서 성장을 거듭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청렴하고 윤리적인 경영활동을 통해 기업의 가치사슬에 함께하는 이해관계자의 이익과 행복이 극대화되기를 기대합니다.

최근 대기업 총수의 뇌물 등 혐의 사건에서 재판부가 실효적 준법 감시체계 구축을 권고하면서 국내 기업들의 컴플라이언스 활동이 사회적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비리나 부정부패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이 내부적인 자정 활동이나 컴플라이언스 강화를 외치는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사법부가 공개적으로 기업의 자율적 준법감시 활동을 기업 임직원의 형사책임 감형에 참작하겠다고 명시적으로 밝힌 것은 국내에서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경제 개발을 최우선 정책으로 내세웠던 개발연대 시대에는 경제 주체들이 자유롭고 창의적인 경제 활동을 보장받지 못하고 강자가 더 많은 사회적 혜택과 기회를 보장받았습니다. 소수의 대기업에 많은 힘이 집중되었고, 경제뿐만 아니라 비경제 영역에서도 막강한 힘을 발휘했습니다. 소수의 경제적 기득권자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정보를 독점하고, 반칙과 부패, 불공정 행위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민주화 시대에 접어들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관련 법과 제도가 정비되고 기업의 준법정신도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국민과 소비자가 아닌 기업을 우선하는 제도과 정책은 비밀비재합니다. 일부 기업은 소비자를 경제발전의 동반자가 아닌 단지 돈벌이 대상으로 보는 잘못된 인식도 여전합니다. 단순히 법률과 사법 제재를 강화해 기업의 비리나 부정부패를 막는다는 것은 한계가 명확합니다. 사법부의 기업 내 독립적인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실천 권고를 '기업 임직원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한 수단'이라고 비판하는 여론도



있지만 기업과 회사 임직원의 준법 감시체계를 마련하는 것은 법에 의한 통제 등 사회적 감시 못지 않게 중요한 시대적 과제입니다. 얼마 전 국내 대기업이 미국 해외부패방지법을 위반한 혐의로 거액의 벌금이 부과된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국내 기업의 해외 사업영역의 확대에 인하여 기업 컴플라이언스의 필요성과 중요성은 오히려 강조되어야 하며, 피할 수 없는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기업들은 지금 매우 혹독한 환경 아래 놓여 있습니다. 세계로 사업영토를 넓혀가는 동시에 현재의 법과 규제에 대응해야 하고 글로벌 기업들과 무한한 경쟁을 펼치는 동시에 다양한 국제협약을 준수하고 미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나아가 정부와 시민사회, 환경, 투자자, 임직원에게 이르기까지 기업의 모든 가치사슬에 함께하는 이해관계자의 이익과 행복을 위해 청렴하고 투명한 의사결정을 해야 합니다.

컴플라이언스는 사전적으로 법규를 준수하는 상태를 의미하지만, 오늘날 기업 컴플라이언스는 국가에서 부과하고 있는 법규뿐만 아니라 올바른 기업윤리에 기반을 두고 기업 구성원이 자발적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기업문화를 개발하고 지속시키는 전 과정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기업 컴플라이언스는 무엇보다 법규 준수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최고 경영자의 지속적이고 확고한 의지가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임직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윤리·준법의식이 기업 전체에 얼마나 큰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우리는 국내외 많은 기업이 겪었던 위기 사례를 보며 경탄한 바

있습니다. 회사가 아무리 훌륭한 시스템을 구축한다 해도 임직원이 이 시스템을 존중하고 준수하지 않는다면 이는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화컴플라이언스위원회의 발족과 활동이 대외적으로 시사하는 바는 크다고 생각합니다. 국내 대기업 중 선두적으로 그룹 차원의 컴플라이언스 독립 조직을 설립하였으며, 나아가 전 계열사의 컴플라이언스 조직을 구축하고 개별 산업과 현지 특성에 걸맞은 교육을 촘촘히 시행하는 한편 대·중소기업 간 상생에 방점을 둔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에 큰 인상을 받았습니다. 또한, 외부적 요인이 아닌 그룹 총수의 준법경영 의지가 반영되어 자발적으로 설립되었고 규제와 통제가 아닌, 존중과 원칙에 따라 꾸준히 활동한다는 점에서 한화컴플라이언스위원회 활동의 진정성에 대한 기대가 크기 때문입니다.

한화컴플라이언스위원회 출범 3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위원회의 활동이 국내 척박한 기업 컴플라이언스 영역에서 진정한 기업 컴플라이언스 활동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더욱 막중한 책임과 사회적 기준을 가지고 가장 윤리적이고 투명하며 정직한 경영을 펼치는 글로벌 리더로서 한화그룹의 이름을 전 세계에서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Work Status

한화그룹의 전 계열사는 준법경영 실천을 위해 역량을 집중해 선제적으로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을 구축하고 의미 있는 성과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한화컴플라이언스위원회는 각 사례가 그룹 전체에 전파될 수 있도록 계열사 컴플라이언스 업무 현황을 적극적으로 수집, 공유하고 있습니다.

- 33 화학·에너지
- 35 기계·항공·방산
- 38 금융
- 40 건설·서비스
- 42 글로벌

화학·에너지

한화그룹 화학·에너지 사업군은 최고의 기술과 생산력을 바탕으로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계열사는 선제적으로 컴플라이언스 전담 조직을 구성해 교육 및 자율 점검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선진적인 에너지 기업으로서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고 지역사회와 공동 번영하기 위한 환경(Environment)·사회(Social)·지배구조(Governance) 경영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독립 조직 구성

한화솔루션 케미칼부문은 2012년부터 준법지원인을 선임하고 준법통제 기준을 제정하여 컴플라이언스 조직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3년부터 매년 전년도 컴플라이언스 활동 및 준법통제 기준 준수사항에 대해 제3자 유효성 평가를 시행,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전사 법규 준수, 일상 법무 검토, 준법통제 기준 운영에 대한 점검 활동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화토탈은 2011년 컴플라이언스팀을 신설했으며 공정거래, 하도급, 상생협력 등 법 위반 리스크를 예방하기 위한 독립적인 교육 및 점검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한화솔루션 규셀부문, 한화솔루션 첨단소재부문, 한화에너지 등 화학·에너지 계열사들 또한 독립적인 컴플라이언스 전담 조직을 구성, 국내 및 해외의 정부 규제와 법령에 대응한 준법경영을 실천하는 한편 전사 임직원 교육 및 실무 가이드라인 배포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사 임직원 준법 교육

화학·에너지 사업군 계열사 임직원은 하도급법, 공정거래법, 청탁금지법 등 주요 법령 관련 교육과 산업안전사고 대응 교육 등을 이수하고 전 사업장에서 위법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각 교육은 해당 법령의 주요 내용과 실무 상 유의사항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했습니다. 한화솔루션 케미칼부문은 이와 함께 매월 사업 관련 법규 재·개정 사항에 대한 전사 메시지를 작성, 배포하여 유관 부서의 법령 준수 미비가 없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해외 법규 준수 교육

해외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한화솔루션 큐셀부문, 첨단소재부문과 한화토탈, 한화에너지 등은 변화하는 글로벌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해외 법규 준수 교육을 실시, 임직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해당 계열사들은 2019년 EU 일반 개인정보보호규정(GDPR) 세미나를 이수했으며, 한화토탈은 해외법인 및 지점 준법경영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한화에너지는 영문 계약서 작성을 위한 교육을 통해 해외 사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경감하고 있습니다. 유럽, 아시아, 북미를 비롯한 전 세계 40개국 이상에서 세일즈 및 마케팅 활동을 하고 있는 한화솔루션 큐셀부문은 미국과 유럽 등 주요 진출국의 공정거래와 개인정보보호를 주제로 한 세미나에 참석, 관련한 주제에 대해 전문가들과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가이드라인 및 체크리스트 작성, 배포

화학·에너지 사업군 각 계열사는 사업의 특성에 걸맞은 준법 가이드라인과 체크리스트를 작성, 배포해 현장에서 일상의 준법경영이 실천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자율 점검

각 사는 본사뿐만 아니라 지방 및 해외 사업장에서 위법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시적인 자율 점검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화솔루션은 내부거래위원회와 상생경영위원회를 두고, 엄격하고 객관적인 기준으로 내부거래를 심의하는 한편 공정거래 이행 관련 주요 사항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특히 케미칼부문은 각 부서 준법점검 담당자를 지정하여 상·하반기 형법, 공정거래법, 청탁금지법 등 주요 사항에 대한 자율 점검을 시행 중입니다. 한화토탈 또한 공정거래법, 하도급법과 관련 위법사항이 없는지 자율 점검을 실시했으며 개인정보 보유 실태 조사 등을 통해 관련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한 바 있습니다. 이 밖에도 해외법인과 지점의 컴플라이언스 실태를 점검했으며 본사 및 지방 사업장의 상시 점검과 담당 인력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한화토탈 중국 북경사업장 교육



주요 가이드라인 및 체크리스트

한화토탈

- 에너지 사업 관련 포함 전사 법령
- 고위험부서 관리 대상
- 공정거래/하도급법 체크리스트
- 개인정보보호법 체크리스트

한화솔루션 케미칼부문

- 공정거래법 갑질 예방 체크리스트
- 하도급법 예방 체크리스트
- 산업안전사고 대응 매뉴얼

한화솔루션 큐셀부문

- 거래처 회생/파산 대응 매뉴얼
- 매출채권관리 규정 제정
- 최신 주요 법령 개정 사항 및 중요 판례

기계·항공·방산

한화그룹의 기계·항공·방산 사업군 계열사는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컴플라이언스 기준을 확립하고 상시적인 점검·모니터링, 교육,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련 계열사는 독립적인 조직을 구성하는 한편 공정거래·하도급, 제조물 책임, 지적재산, 재무·회계, 환경·안전, 조직문화, 부패방지 등의 분야를 아우르는 준법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기업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적극 부응하고 있습니다.

독립 조직 구성

항공엔진 및 방산, 정밀기계 분야 4개 계열사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테크윈, 한화파워시스템, 한화정밀기계)는 통합 컴플라이언스 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협의회는 매 반기별 정기회의를 통해 각 사 준법경영 운영 현황을 공유하며, 준법경영 관련 규정 제정, 활동 우수자 포상 및 위반자 제재 결의 등 독립적이고 광범위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전사 임직원 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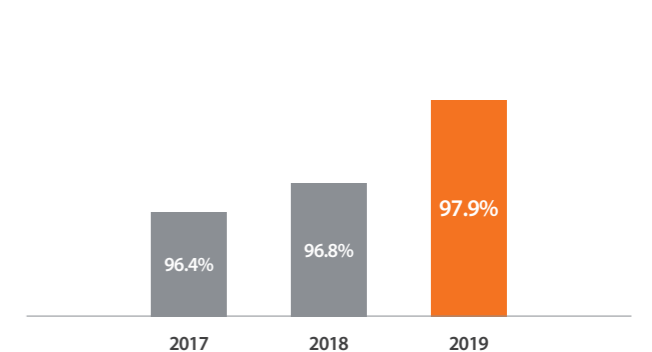
기계·항공·방산 사업군은 각 계열사 임직원의 직급 및 업무 특성을 고려한 다양하고 특화된 준법 교육을 실시합니다. 이에 따라 전 임직원은 CP기초, 부패방지, 성희롱 예방, 하도급법 등 컴플라이언스 관련 제반 사항에 대한 교육을 이수하고 있으며 전 사원 기본교육 이수율은 97.9%입니다. 국내뿐 아니라 해외법인에 대한 준법교육도 매년 확대 중으로, 2019년에는 베트남 4개 법인에서 834명의 임직원이 관련 교육을 이수했습니다.

또한 준법경영 관련한 리더십 강화를 위해 각 사 임원 대상 준법 교육을 별도로 연 2회 이상 실시하고 있으며 임원이 부서원을 직접 교육하는 '임원 준법 강의'를 적극적으로 권고하고, 하도급법 및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과 관련한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2019년 통합 컴플라이언스 협의회 개최



연도별 준법 교육 이수율(전 사원 기본 교육)



전사 임직원 교육



찾아가는 눈높이 교육

현업 부서의 신청에 따른 맞춤형 교육 또한 진행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가 업무 관련성이 높은 이슈를 선정, 신청하면 요청 시간과 장소에 직접 방문하여 소규모 집합교육을 실시하는 방식이며, 각 계열사는 팀당 연 1회 이상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현재 공정거래, 성희롱 방지, 개인정보보호 등을 주제로 교육이 진행되고 있으며 2019년에는 160회, 3,178명의 임직원이 교육을 이수했습니다.

해외법인 준법 교육



자율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활동

자율적인 준법경영 실천으로 상시적인 리스크 관리 및 컴플라이언스 시스템 개선을 추진합니다. 각 사는 영업비밀보호, 하도급법, 부패방지, 개인정보보호 등 테마별 체크리스트를 통한 부서별 리스크 모니터링을 진행하는 한편 임직원의 97.8%가 개인별 시스템 접속 후 자가점검 테스트를 수행했습니다. 이 밖에도 업무상 컴플라이언스 리스크 문의 창구를 상시적으로 개설하는 한편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개선에 대한 임직원의 제안을 접수, 이를 시스템에 적극 반영했습니다.

2019 주제별 찾아가는 눈높이 교육 시행 현황

테마	시행건	테마	시행건
개인정보보호	12	영업비밀	7
계약법규(국내)	8	방산기밀	5
계약법규(해외)	8	방위사업법	12
공정거래(상생협력)	13	사내도급	1
공정거래(하도급)	40	외국환관리	6
공정거래(내부거래)	5	직장내성희롱	31
국내부패방지	12	계	160

Compliance Week



사업장별 현장 점검 및 임원 준법지수 평가

국내 사업장 및 글로벌 생산 현장 등을 대상으로 준법활동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계약서, 성희롱 예방, 반부패, 하도급 관련 사항 등 폭넓은 점검 항목을 적용해 사업장에서 상시적인 준법경영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근간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임원 및 보직장 평가점수에 준법지수를 부여, 준법교육, 점검 모니터링, 자율 참여, 준법지 전파 등의 항목을 개인별로 평가하고, 준법경영에 대한 전사적 관심을 확대했습니다.

2019 준법실천자의 날



컴플라이언스 이벤트

컴플라이언스 문화 저변 확대를 위한 전사 이벤트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2016년부터 시행 중인 'Compliance Week'는 온·오프라인 행사로, 팀과 개인이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이벤트와 각 사업장별 오프라인 이벤트인 '찾아가는 준법 골든벨' 등으로 구성된 연간 행사로, 한화그룹의 기계·항공·방산 사업군을 대표하는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또한 임직원을 대상으로 1년간의 준법활동 결과를 보고하고 우수 준법실천자를 시상하는 '준법실천자의 날' 행사를 기획, 임직원의 컴플라이언스 준수 의지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금융

고객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금융 사업군 계열사들은 임직원의 올바른 가치 판단과 행동 기준을 제시하는 조직과 제도를 구축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본사뿐만 아니라 광범위한 영업 조직에서 법률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각적인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독립 조직 구성

한화생명과 한화손해보험, 한화투자증권, 한화자산운용 등 금융 계열사는 독립적인 준법 감시 조직을 구성하고 전사 법규 준수, 일상업무 검토, 내부통제 운영에 대한 모니터링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매년 정기적으로 내부통제 체계·운영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며, 각 부서장은 소속 부서에 대한 내부통제 업무의 적정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해 그 결과를 매월 준법감시인에게 보고합니다.

전 임직원 윤리준법 교육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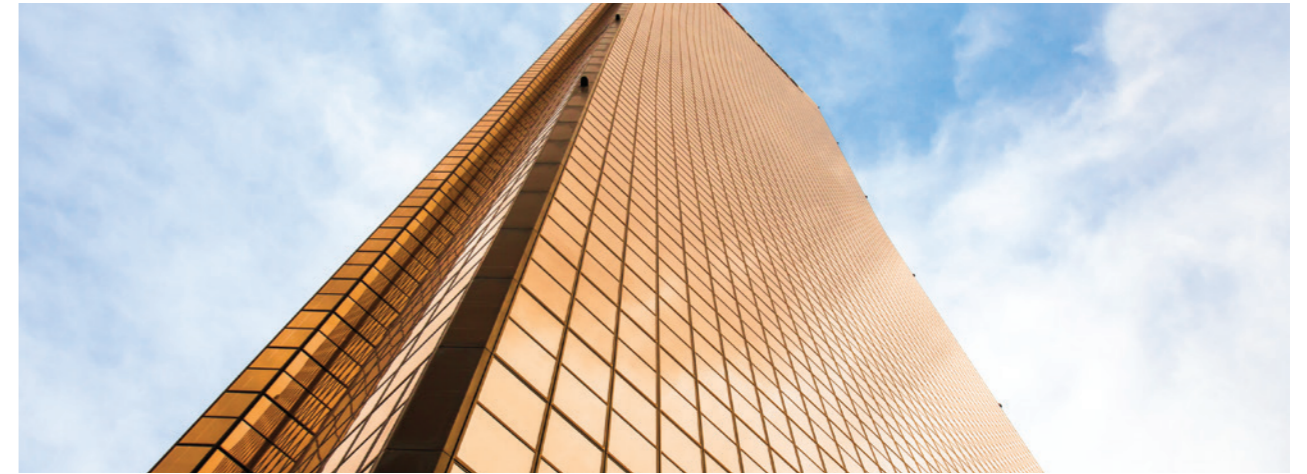
한화생명은 매년 전 임직원이 참여하는 개인정보보호, 공정거래, 임직원윤리 등의 사이버 교육을 통하여 윤리경영 및 준법 문화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담당업무 및 수준에 따라 차별적 내용으로 구성된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내부 방송을 통해 매월 정기적으로 윤리준법 실천사항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준법경영 인프라 구축

한화생명은 준법감시 시스템, 종합감사정보 시스템, 내부회계관리 시스템 등 다각적인 준법경영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임직원은 이 시스템을 활용해 직무윤리 및 법규 준수 여부를 점검, 실천할 수 있으며, 홈페이지 등을 통해 불공정거래나 각종 비리에 대해 신고·고발할 수 있습니다. 한화투자증권 또한 홈페이지, 전화, 전자우편 등을 활용한 내·외부 금융사고 및 부조리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스스로 준수하기 위한 내부통제 시스템인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Compliance Program)을 운영합니다. 한화생명은 관련 법규 준수 및 위반 행위 예방, 리스크 조기 발견 등을 위해 2006년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도입했으며, 관리자 임명, 운영 규정 및 세칙 제정, 편람 제작 및 배포 등을 통해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를 정착하고 내부 통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윤리·준법 서약

한화생명은 윤리강령을 제정하고 임직원과 FP(보험 모집인)의 적극적인 윤리·준법경영 실천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윤리·준법 서약식을 진행, 준법경영이 전사적 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화투자증권은 고객 우선, 법규 준수, 신의성실, 시장질서 존중, 사회적 책임 등을 골자로 하는 금융 윤리강령을 제정하고 이를 자발적으로 준수하며 한화손해보험과 한화자산운용도 기업시민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골자로 한 윤리헌장을 선포하고 임직원이 준수해야 할 윤리행동 지침을 구성, 이를 임직원들에게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한화생명 윤리준법 서약식



자금세탁방지제도

국내 또는 국제적으로 이루어지는 불법 자금세탁을 적발하고 예방하기 위한 자금세탁방지제도를 갖추고 있습니다. 한화생명은 2001년부터 자금세탁방지(Anti Money Laundering)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7년에는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인 FATF의 권고사항을 반영한 '위험기반 전사적 자금세탁 위험평가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거래를 이용한 불법자금의 세탁행위를 차단하고 금융기관으로서의 대외 신인도를 제고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화손해보험은 자금세탁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선도적으로 RBA(Risk-based Approach) 시스템과 STR(Suspicious Transaction Report)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또한 AML 전담자의 전문 역량을 향상시키고, 현금거래 모니터링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업계의 모범이 되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2019년 '자금세탁방지의 날' 기념행사에서 '금융위원장 기관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한화손해보험 자금세탁방지 금융위원장 표창



건설·서비스

국내 첫 번째 신도시 수출이라는 쾌거를 이룬 한화건설을 비롯, 국내 최고의 부동산 관리 노하우를 지닌 부동산 서비스 계열사, 국내 13개 콘도미니엄 체인을 운영 중인 서비스 계열사 등은 상시적인 준법 및 윤리경영 실천을 통해 상생과 협력의 경영문화를 확립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 및 해외에 산재한 현장을 아우르는 온라인 교육체계를 갖춘 것이 특징입니다.

독립 조직 구성

한화건설은 내부감사 및 윤리경영 감독 조직, 외주 상생혁신 조직, 전사적 준법 통제 조직, 교육 계획 수립 및 시행 조직을 독립적으로 두고 유기적인 컴플라이언스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부거래심의위원회를 설립하여 계열사와의 거래조건 적정성 등을 심의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공정거래법 관련 위험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화호텔&리조트는 전사적인 컴플라이언스 조직을 신설, 임직원의 준법 의식을 제고하고 관련 교육 등 활동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전사 임직원 준법 교육

한화건설은 정기적으로 하도급법, 윤리경영 관련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사업본부별 직무 교육과 현장소장 회의 시 준법 교육, 위법행위 소개, 준법경영 실천사항 전파 등을 병행해 일상적인 준법 실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한화에스테이트는 공정거래 및 하도급거래 관련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주요 2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현장 직접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사업장을 둔 한화호텔&리조트는 전사적인 윤리경영 캠페인을 진행해 준법 의식을 고취하고 한화63시티는 2019년 하도급법 관련 전국 37개 운영지원센터 현장 직원들의 질의사항을 취합, 실질적인 FAQ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한화63시티 운영지원센터 교육



한화건설 준법교육



준법 신고 시스템 확립

건설·서비스 사업군 각 계열사는 성희롱 신고센터, 사이버 신문고 등 다양한 감시 시스템을 운영하고 이를 통해 임직원이 자율적으로 준법경영을 실천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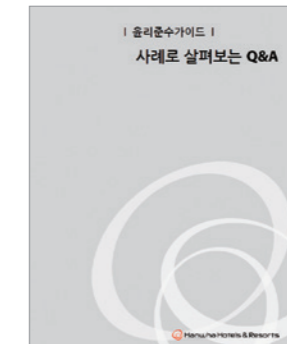
메시지 전파 및 체크리스트 배포

건설·서비스 사업군 각 계열사는 전국 현장에서 위법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시적으로 대표이사의 준법경영 메시지를 전파하고 관련 체크리스트를 배포하고 있습니다. 한화건설은 건설산업법 등 건설 관련 법령 개정 사항을 수시로 업데이트해 현장에 전파하고 있으며 한화에스테이트는 하도급법 상 위법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안의 기본 내용과 위법 사례 예시 등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한화호텔&리조트는 명절기간 내 굶품 및 항응, 편의제공 등의 부당거래가 일어나지 않도록 관련 공문을 발송하는 한편 셀프 체크리스트를 포함한 '윤리준수가이드'를 제작, 배포해 일상적인 준법경영이 실천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한화건설 사이버신문고



한화호텔&리조트 윤리준수가이드



글로벌

한화그룹은 태양광을 비롯한 항공엔진, 화학, 자원개발, 금융, 무역 관련 계열사들이 세계를 무대로 활발한 사업을 펼치는 글로벌 기업입니다. 각 계열사 및 법인은 철저한 이사회 중심 경영 속에서 현지의 법을 준수하고 지역사회 내에서 존경받는 기업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Hanwha Holdings Inc.(HHI)

Hanwha Holdings Inc.는 미주 지역에서 재무, 법무, 인사, 보험 등 관리 기능을 통합해 지원하는 법인으로 2007년 출범 이후 Shared Service 계약을 체결한 한화그룹 해외 계열사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컴플라이언스 및 운영 지원

HHI는 미주 내 전 계열사를 상대로 한 컴플라이언스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9년 현재 HHI가 자문 및 지원을 제공하는 계열사는 총 23개로, 각 법인 정관·사규·이사회 관리, 주주 및 이사회 의사록 작성 가이드 등을 통해 이사회 중심 경영을 강화하는 한편 미주 지역에 진출한 계열사의 적법한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지 변호사를 포함한 전문 인력이 법규·판례 모니터링, 환경안전 및 이민법 지원, 상거래 및 관리 계약서 검토, 현지 고용 환경 및 노동법규 특성을 고려한 노무·인사 지원 등 폭넓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현지법인은 안정적인 현지화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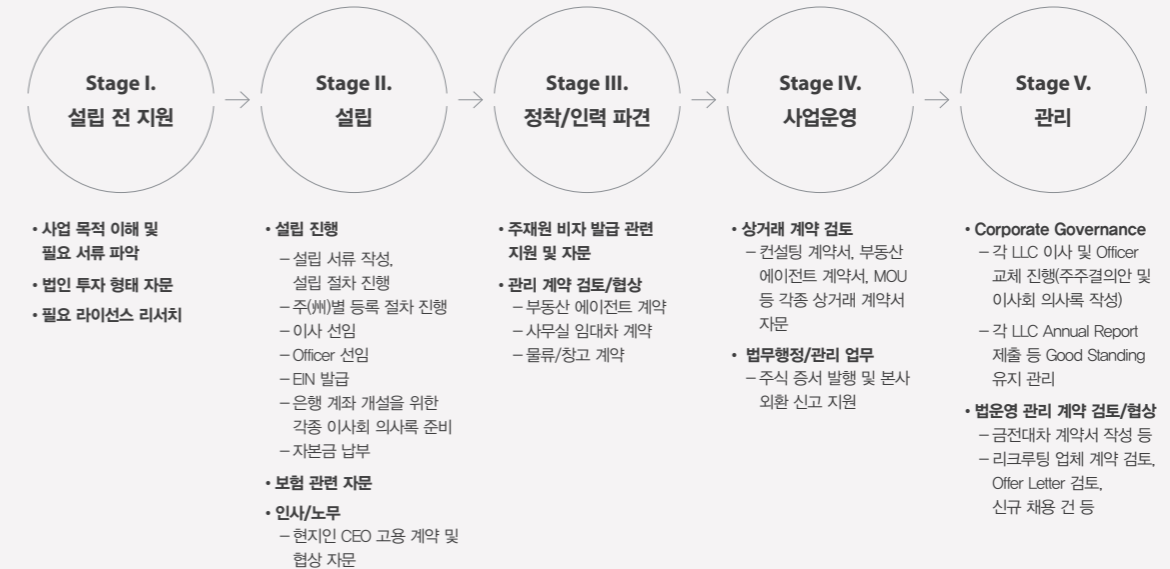
계약/분쟁/협상 지원

HHI는 계약서 작성 및 검토부터 분쟁 합의에 이르는 종합 법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현장 밀착형 지원을 실행하며 2019년 미주 진출 법인의 누적 자문 제공 시간은 총 4,128시간에 이릅니다. 이에 따라 자동차 부품 장기 공급계약 체결, 신규 제조공장 인프라 구축 계약 검토 및 협상 지원, 분쟁 합의 및 소송 합의 등의 성과를 창출했습니다.

미주 진출 및 투자 지원

계열사의 미주 진출 및 신규 투자 이슈가 발생할 경우 HHI는 축적된 현지 운영 노하우를 활용해 차별화된 법무 서비스를 제공하고 각 법인이 철저한 준법경영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기밀유지협약 검토부터 협상 참여, 실사 지원, 계약서 리뷰, 사후 관리에 이르는 투자 전 과정에 대한 원스톱 법무 지원은 사업 전반의 리스크 감소 및 신규 법인의 현지화와 정착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HHI 신규 시장 개발 원스톱 법무 서비스 제공 사례



HHI 방문 교육



Hanwha International LLC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베트남과 미국 등에 생산 기지를 두고 있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해외법인에서도 국내와 같은 수준의 자발적이고 철저한 준법경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과 점검·모니터링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베트남 4개 법인 834명에 대한 준법교육을 시행했으며 근로기준법 준수, 반부패, 성희롱 예방, 계약서 관리 등에 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개선 사항 등을 파악해 위법사항이 없도록 권고했습니다.

한화솔루션 큐셀부문

한화솔루션 큐셀부문은 4개국의 R&D 센터, 4개국의 제조공장 및 40개국의 글로벌 영업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는 글로벌 태양광 솔루션 기업으로서 각국의 법령과 규제에 걸맞은 준법경영을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R&D 본사가 위치한 독일 한화큐셀 GmbH는 UN 글로벌 콤팩트가 제시하는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에 관한 원칙을 준수하며 준법 관련 임직원 교육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미디어에 비친 한화컴플라이언스위원회



2020. 2. 6. 뉴데일리

한화 정도경영 안착... 이사회 중심 투명성 제고

한화그룹이 준법경영을 목표로 조직 내실화에 나선 지 3년이 지났다. 이 기간 컴플라이언스위원회는 이사회 중심 경영을 권고했고, 각 계열사는 경영 투명성 강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화는 지난해 전 계열사 450여 명 임원을 대상으로 준법경영의 중요성과 업무의 지속가능성 등을 강연했다. 아울러 하도급법과 공정거래법 등을 임직원에 교육해 글로벌 선진사례와 우수 업무과정 등을 공유했다.



QR코드를 클릭하시면 기사 전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2020. 2. 6. 한겨레

한화그룹, 준법을 최우선으로 지속 발전 도모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이 '안전과 준법(컴플라이언스)'을 지속가능 경영의 전제조건으로 강조했다. 올해 신년사에서 김 회장은 "안전과 컴플라이언스는 한화를 영속적인 미래로 나아가게 할 든든한 두 바퀴다. 한화의 이름으로 진행되는 모든 업무는 언제나 이 두 가지의 완벽한 실천으로부터 시작돼야 할 것이다"라고 언급했다. 김 회장은 준법경영을 화두로 삼아 이를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으로 강화할 것을 지속해서 강조해왔다. 2018년에는 그룹 차원의 컴플라이언스 정책을 수립하고, 각 계열사의 이행 여부 점검 및 관련 업무 자문 역할을 하는 한화컴플라이언스위원회를 설립했다.



2020. 2. 3. 한국경제

한화, 계열사별 맞춤형 상생경영

한화그룹이 상생경영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협력사와의 동반성장을 통해 그룹 경쟁력을 한층 끌어올린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한화그룹은 2018년 7월 컴플라이언스위원회를 출범했다. 그룹 계열사의 준법경영과 상생경영을 지원하고 감독하기 위한 기구다. 컴플라이언스위원회는 중소기업과의 상생경영 및 동반성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자율준수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임직원 대상 법률 교육도 하고 있다.



2020. 1. 29. 서울신문

한화, 이사회 중심 경영으로 투명성 강화

한화그룹이 경영의 투명성을 강화한다. 이사회 중심의 경영을 하기 위해 경영기획실은 폐지하고 준법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한 '한화컴플라이언스위원회'의 조직을 재정비한다. 한화그룹은 자발적인 준법경영을 위해 2018년 7월 컴플라이언스위원회를 설치한 뒤로 조직의 내실화에 힘쓰고 있다. 위원회가 이사회 중심 경영을 권고한 데 따라 경영기획실을 해체했으며 그룹 출신 사외이사는 순차적으로 배제하는 방식으로 이사의 독립성을 강화했다.



2019. 7. 23. 매일경제

한화, "함께 멀리 걸으며 경쟁력 확보를" 공정거래 정착 위한 위원회 출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은 지난해 신년사에서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통해 얻은 이익만이 그 가치를 평가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평소 '함께 멀리'라는 동반성장 철학을 강조해 왔다. 한화그룹은 이 같은 경영 이념을 실천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지난해 7월 그룹 계열사의 준법경영과 상생경영을 지원·감독하기 위해 컴플라이언스위원회를 출범시켰다. 단순 청년 채용에서 벗어나 미래 국가 경제의 근간이 될 청년과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도 본격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2019. 4. 15. 한국경제

한화, 컴플라이언스총괄 만들어 공정거래·상생경영 감독

"손쉽게 이윤을 얻는 행위는 단기적으로 재무적 이익으로 포장될 수 있지만, 결코 지속가능한 시장 경쟁력이 될 수는 없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지난해 신년사에서 한 말이다. 한화그룹은 이 같은 김 회장의 발언을 계기로 협력회사들과의 상생경영을 위해 조직을 꾸렸다. 지난해 7월 설립한 컴플라이언스위원회가 대표적이다. 한화그룹 계열사의 준법경영과 상생경영을 지원, 감독하기 위해 만든 조직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경영, 기업의 지속가능한 동반성장 기반을 구축하는 차원에서 자율준수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공정거래 확립을 위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을 계열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교육한다.



2019. 1. 15. 뉴데일리

김승연 회장의 준법경영 드라이브... 2년차 '컴플라이언스위원회' 주목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올해도 어김없이 준법경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지난해 컴플라이언스위원회 출범으로 기틀을 다진 만큼, 올해는 위원회 활동을 본격화하는 등 그룹 준법경영에 대한 한층 강력한 드라이브를 예고한 것이다. 재계 10대 그룹 중에서 컴플라이언스위원회를 운영하는 기업은 롯데와 한화 두 곳뿐이다. 특히, 컴플라이언스위원회는 총 5명 위원 가운데 3명을 외부 위원으로 구성해 독립성과 객관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위원장에는 이훈훈 전 대법관, 외부위원으로는 이정구 전 성공회대 총장, 조홍식 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장 등이 선임됐다.



2018. 11. 20. YTN

한화그룹, 내년부터 준법경영 강화한다

한화그룹은 5개 계열사 대표이사과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준법 실천자의 날' 행사를 열고 내년도 준법경영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우선, 내년 상반기부터 모든 계열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준법 교육을 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경영과 동반성장을 위한 자율준수 지침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2018. 11. 20. 아시아경제, 한국일보, 문화일보 등

한화그룹, 함께 멀리 준법경영으로 동반성장 기반 다진다.

한화그룹이 준법경영 강화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강조한 '함께 멀리'의 가치를 실천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한화그룹은 19일 중구 장교동 한화빌딩에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지상방산, 한화정밀기계, 한화파워시스템, 한화테크윈 등 5개사 대표이사 및 임직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 준법실천자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2018. 6. 1. 동아일보

경영기획실 해체-일감 몰아주기 해소... 한화 '준법경영' 드라이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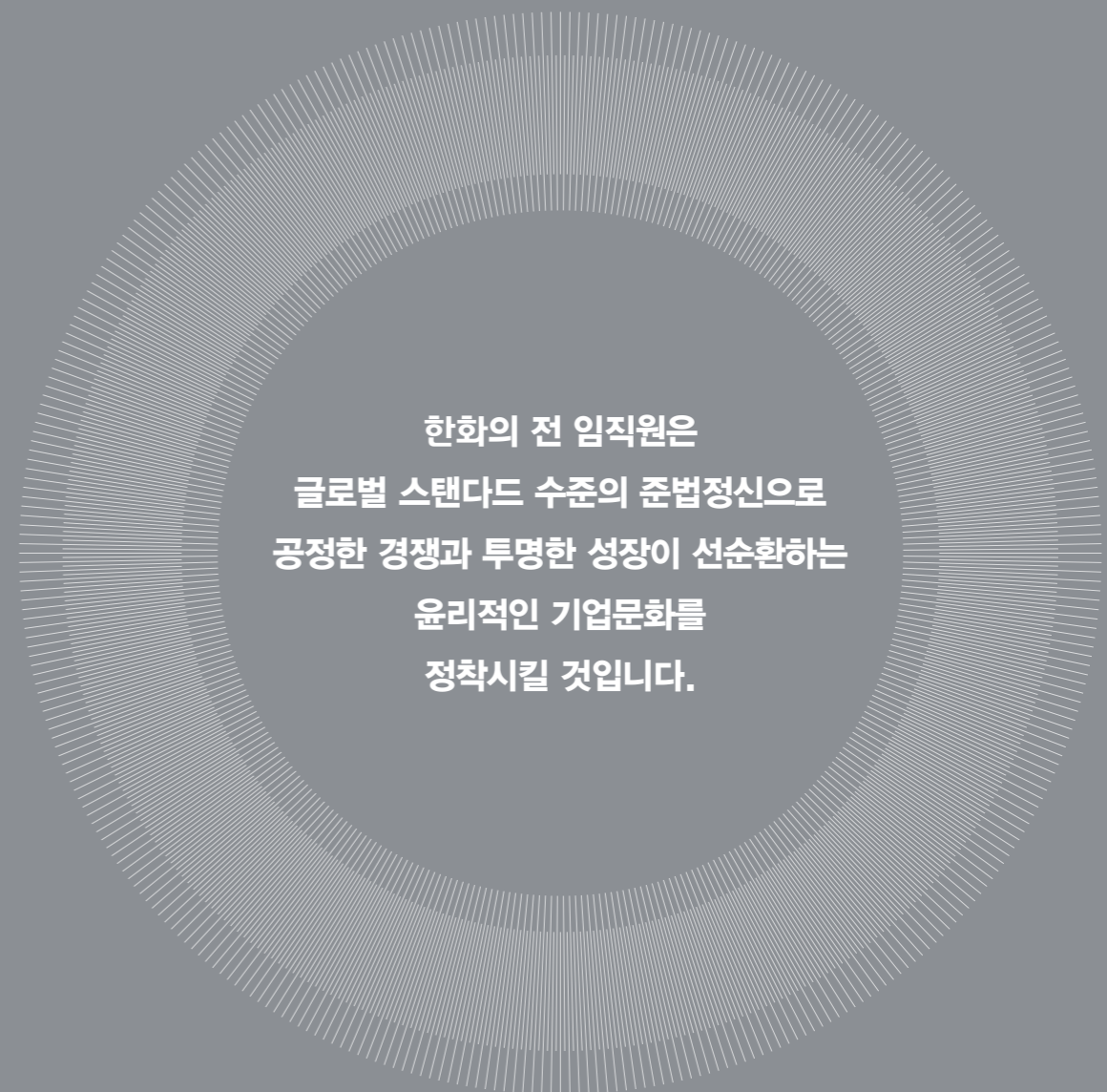
한화그룹이 그룹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던 경영기획실을 해체하고 계열사별 책임경영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또 사외이사들의 독립성을 강화시켜 계열사 간 내부거래와 하도급 관련 부당행위를 심의하도록 하는 일종의 '사내 공정거래위원회'를 가동한다. 문재인 정부의 재벌개혁 기조에 맞춰 선제적으로 '자발적 혁신'에 나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2018. 5. 31. 한겨레, 연합뉴스 등

한화그룹, 일감 몰아주기 해소 등 지배구조 개편안 발표

한화그룹이 일감 몰아주기 해소, 이사회 중심 경영 및 계열사 독립 책임경영 강화 등 지배구조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일감 몰아주기를 해소하기 위해 한화S&C와 한화시스템이 이날 이사회를 열고 합병을 의결했다. 한화그룹은 또 계열사 독립 책임경영을 강화하기 위해 경영기획실을 해체하고, 최상위 지배회사(모회사)인 (주)한화에 그룹 대표기능을 맡기로 했다.



한화의 전 임직원은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의 준법정신으로
공정한 경쟁과 투명한 성장이 선순환하는
윤리적인 기업문화를
정착시킬 것입니다.

